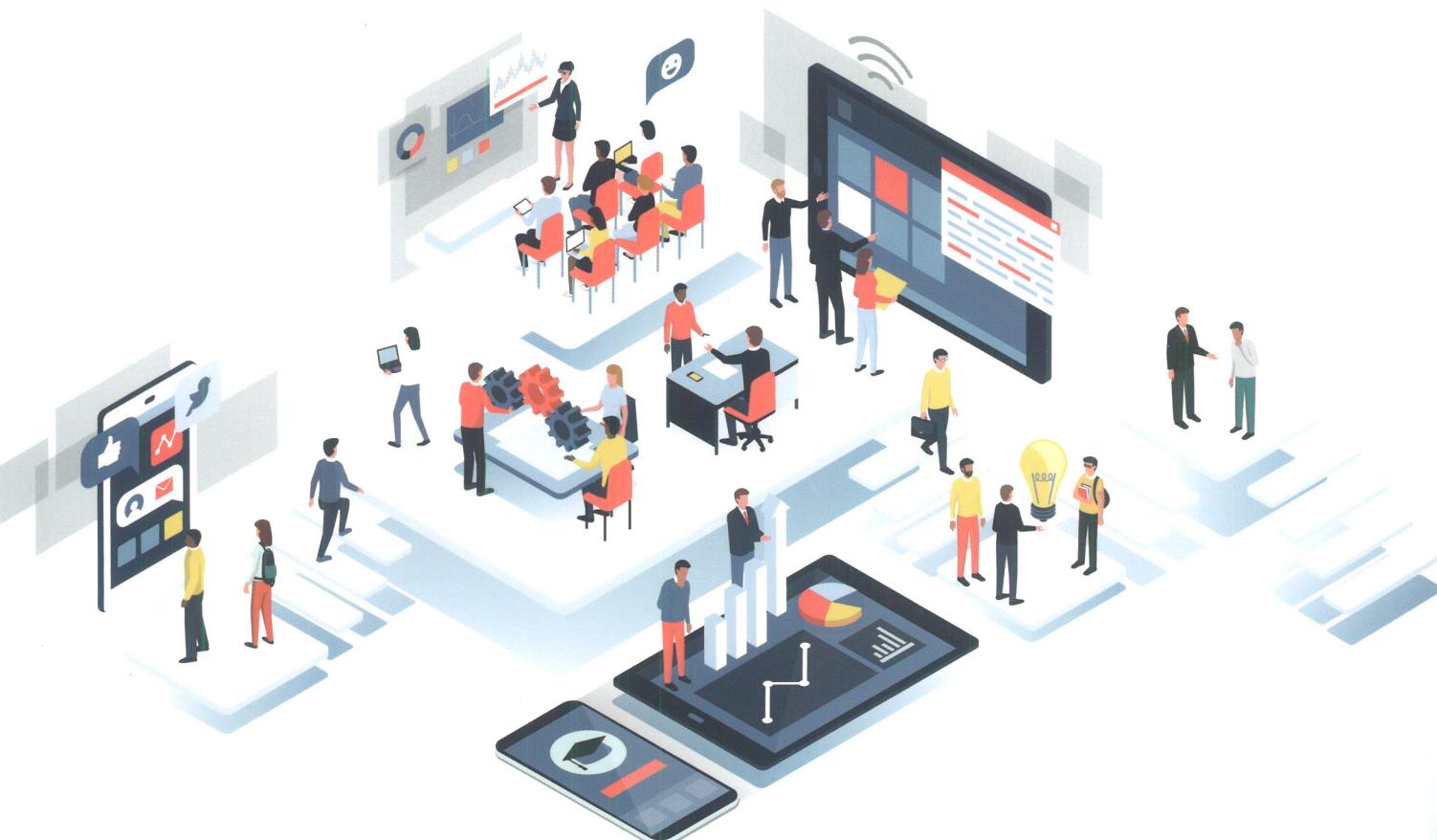


내안의 나를 찾아 떠나는

때일을 내일로

2022년

제13기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뉴스레터 모음집



송상현·조현욱 멘토팀의 연합 멘토링

시원한 여름비가 쏟아지던
지난 6월 30일, 모진 비를 뚫고 멘티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바로 송상현·조현욱 멘토팀의
연합 멘토링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죠!

유익한 강연과 더불어 다른 팀 멘티들과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열렸던 곳,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연합 멘토링이란?

연합 멘토링은 2팀 이상이 연합하여 활동하는
멘토링으로, 소속 팀 외 다른 팀 멘토 또는 외부
강사로부터 폭넓은 멘토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멘토링 활동입니다.

외교 꿈나무에게 전하는

삶의 발자취



본격적인 연합 멘토링 강연을 시작하는 모습

만나서 반가워, 친구야!

먼 길을
달려왔을
멘토·멘티를
위한

커피와
다과도
준비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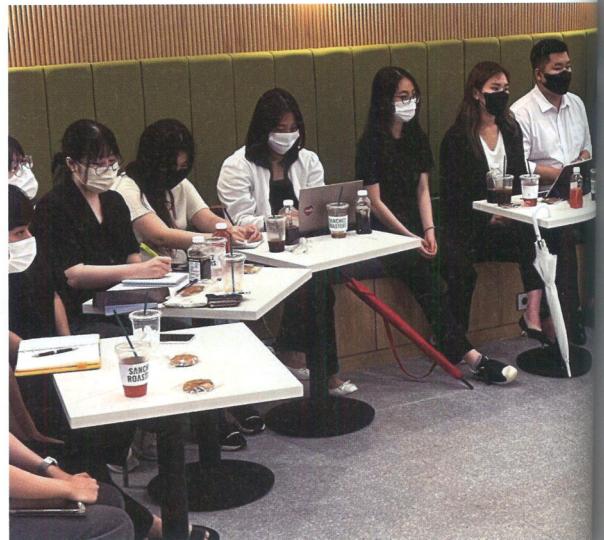
연합 멘토링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



연합 멘토링이 시작되기 30분 전, 오늘의 주인공 송상현·조현우 멘토와 대학생 멘티들을 맞이하기 위해 바쁜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쾌적한 강연을 위해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먼 길을 달려왔을 멘토·멘티를 위한 커피와 다과도 준비되었지요.



어느새 자리를 가득 메우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멘티들



잠시 후 멘티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어느새 자리를 가득 메웠는데요.
서로 다른 팀이 함께 모이는 첫 활동인 만큼 약간은 어색한 기류도 흘렀지만,
이내 이야기꽃을 피우며 현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인공 입장!



강연을 준비한 송상현·조현욱 멘토의 모습

오늘의 연합 멘토링을 이끌어 줄 송상현·조현욱 멘토가 모습을 드러내자 멘티들은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강연의 주인공 송상현 멘토는 우리나라 1세대 법조인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이자 제2대 재판소장으로 봉직하며 한국 법조인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드러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한 조현욱 멘토는 그의 제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지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송상현 멘토의 가벼운 인사와 함께 시작된 강연은 <정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와 인권의 중요성>을 주제로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연합 멘토링 강연을 시작하는 모습

외교 꿈나무에게 전하는 삶의 발자취

어린이재단까지
설립하여
백혈병 환아와
결식아동을

구제하는 일에
매진하였다고
합니다.



강연을 펼치고 있는 송상현 멘토와 경청하는 멘티들



강연을 통해 송상현 멘토의 청년 시절부터 법조인의 길을 택한 계기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지난 12년간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해 오기까지의 삶의 발자취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송상현 멘토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곧장 미국 유학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내로라하는 정부 기관의 고위직으로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지만, 마음이 이끌리는 곳을 향해 떠났던 것이죠. 이후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돌아온 그는 대학교 강사로 일하며 주변의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말마다 고아원에 방문하여 어린이들을 돋는 일을 꾸준히 하였고, 나중에는 이런 관심이 계기가 되어 어린이재단까지 설립하여 백혈병 환아와 결식아동을 구제하는 일에 매진하였다고 합니다.

행동할 수 있는

멋진 인재로

성장할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끝마쳤습니다.

모교의 대학 교수로 지내며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았던 송상현 멘토는 이후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으로 임명되며 국제 법률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2009년에는 동료 재판관들의 추천을 받아 2대 재판소장에 선임되어 총 12년의 기간 동안 그의 실무와 학문의 경험을 전 세계에 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을 비롯한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그가 축적해온 인생의 교훈과 지혜를 나누며 인생의 제2막을 펼쳐나가고 있는 송상현 멘토. 그를 만나기 위해 자리한 푸릇한 멘티들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나중에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위치에 서게 되든 주변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하며 작은 봉사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이어서 “여러 나라를 돌아 다녀봐도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며 글로벌 무대를 향해 나아갈 때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멋진 인재로 성장할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끝마쳤습니다.



강연 중 송상현 멘토와 조현옥 멘토의 모습

이런 기회 또 없어요! 자서전 사인회와 저녁만찬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가 한층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었지요.



자서전 사인회에 이어 저녁 만찬을 즐기는 모습

이대로 떠나기에는 아쉬운 법! 연합 멘토링 강연이 끝난 후에는 송상현 멘토의 자서전 사인회와 저녁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송상현 멘토의 사인을 받기 위해 멘티들이 하나둘 달려와 어느새 긴 줄이 이루어졌는데요! 멘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사인과 함께 격려의 조언을 한 줄씩 써 내려가는 송상현 멘토의 눈빛에서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저녁 만찬에서는 모든 멘토와 멘티가 둘러앉아 맛있는 도시락을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가 한층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었지요.

알아두면 좋아요!

연합 멘토링과 더불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보더리스 멘토링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더리스 멘토링은 오픈 멘토링과 피어 멘토링으로 구분됩니다.

① 오픈 멘토링은 소속 팀 외의 멘토님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멘토링으로 참석 시 재단 필수 프로그램 대체 참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② 피어 멘토링은 소속 팀 멘토의 이전 기수 멘티(피어 멘토)와 진행하는 멘토링으로 피어 멘토가 후배 멘티에게 사회진출 또는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경험담을 공유하는 멘토링 활동입니다!

이처럼 일반활동과 특별활동 외에도 연합 멘토링, 피어 멘토링 같은 다양한 멘토링 활동이 가능하답니다! 멘토, 멘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Q. 오늘 연합 멘토링 강연을 들은 멘티들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A. “송상현 멘토님은 이전에도 알고 있던 분이라 평소에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멘토님의 삶의 경험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저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면 어떻게든 나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도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하연 멘티

A. “현재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고 미래 진로를 법 관련한 분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모처럼 두 가지 분야에 모두 몸담아왔던 송상현 멘토님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멘토님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앞으로 저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어요.”

서은주 멘티

A. “멘토님이 걸어오신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래에 제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투영할 수 있었어요. 저도 멘토님과 같은 길을 꿈꾸고 있는데, 법조인은 대상이 한 개인이 되었던 사회 전체가 되었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이잖아요. 그 위치에 올라섰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준혁 멘티



연합 멘토링 종료 후 다함께 찍은 단체 사진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송상현·조현욱 멘토팀의 멘티들!
앞으로 걸어갈 찬란한 꽃길을 기대해봐도 좋겠지요?